



다섯번째 이야기

예수, 부활의 소망과 만나다

[2020 선교사 사역현장 ②-1]

M국에서 해마다 맞는 고난주간은 가끔 이벤트 같았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은 금식을 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름 경건하게 보내긴 했으나 의례 돌아오는 시간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동이 없기도 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찼던 2012년 봄, 그 해 부활절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정은 수도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J도 시에서 살 때였습니다. 수도와 너무 멀어서 육로로 30시간, 비행기로도 2시간이 걸렸습니다. J도시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일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도무지 변화가 없는 현지인들과 마주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J도시 입구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 어려운 요즘, 다가오는 부활절에도 그때와 같이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말,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던 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몇 번 나왔던 N자매가 현지인 목회자가정과 찬양 세미나 참석 차 수도로 가던 중 버스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에 몰려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인상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면 제 명을 다 못 살고 죽는대요. 오늘 새벽에도 이 교회 다니던 아이가 버스 사고로 죽었다면서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은 전혀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N자매의 부모는 군 공무원이고, 더욱이 신앙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J도시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로 큰 사고 소식이 퍼지는 데 반나절도 채 안 걸렸으니 앞으로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지면 복음의 문도 막힐 것 같았습니다.

3일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 밖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유족들의 슬픔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장지까지 따라갔습니다. 3월이라 해도 영하 10도였고, 하얀 눈으로 덮인 차디 찬 땅에 N자매를 두고 돌아오는 길은 정말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N자매의 장례식, 어머니 B자매(검은 옷)를 위로 하는 성도들

그러나 N자매의 생명이 J도시에 세워진 ‘생명의 씨앗’교회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N자매의 어머니와 만나며 이전까지 저희가 가졌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N자매의 어머니인 B자매는 딸의 유언에 따르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일기장에 ‘첫 번째,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N자매의 사고 소식으로 임대하던 예배 장소에서 쫓겨난 터라 그 주일부터 N자매의 집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곳에서 주일학교가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의 유언의 절반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2012년 당시 ‘생명의씨앗’교회 주일학교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의 어려움이 있지만, 뵈뵈 선교사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글쓴이: 뵈뵈 선교사]

현재 M국 D도시에서 사역중이며, TIM 두란노 소속이며 2018년부터 M국 6개 지역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BEE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디도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 뵈뵈, 정라: 정주영,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

5. 고명신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1998년 서빙고 새신자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던 중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양재 중고등부 교사를 하며 말씀을 힘 있게 전하고 싶어 BEE공부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 싶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구성된 베트남 기도 테이블 리더로서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온누리 양재 주기쁨 성가대 하모니 공동체를 섬기며, 슬하에 두 아들과 며느리, 10개월 된 손자가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의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열방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선교지와 선교사, 교회를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3월 28일(토) 기도모임과 정기총회의 유튜브 온라인 진행을 시작으로 4월 기도모임부터는 매주 토요일(6:30)에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